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짜장면과 쌀국수

인류는 '면류'(麵類)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유럽에서 아시아-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면은 보편적인 인류의 음식이다. 한국인의 면 사랑은 유별나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나는 하루 한 끼는 면을 먹는다. 해장 음식의 으뜸도 면이다. 한 때는 라면과 짬뽕이었고, 요즘은 냉면으로 해장한다. 이국의 정취가 배어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였다. 주방에 주문을 넣는 중국어의 악센트, 수타면을 쿵쿵 치는 소리, 그리고 엽차와 단무지 등은 우리가 기억하는 중국집의 소묘였다. 중화요리는 한국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70년대 이전에는 화교의 고유 기술이였다.

역사의 시계를 멀리 돌려 보자. 1882년, 조선의 수도 한성에 임오군란이 터졌다. 분노한 군인들이 시내 곳곳의 관청과

세도가들의 집을 습격하고, 신식 군대를 조련하던 일본의 공사관에도 쳐들어갔다. 다급해진 조선 조정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는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30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임오군란의 수습 국면에서 두 나라는 '조정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맺었다. 조약의 핵심은 청나라 자본이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식민 강권 통치기에 기술자, 노동자, 농민도 속속 건너와서 조선 반도에서 일하게 된다. 청요릿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산동성 출신의 솜씨 좋은 요리사들이 대활약한다. 짜장면 시대의 개막이였다.

이때 처음 들어온 중국 상인이 40여 명이었는데, 이 땅에 뿌리내린 '화교'의 시작이였다. 화교는 장사꾼만 들어온 것은 아니였다. 식민 강권 통치기에 기술자, 노동자, 농민도 속속 건너와서 조선 반도에서 일하게 된다. 청요릿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산동성 출신의 솜씨 좋은 요리사들이 대활약한다. 짜장면 시대의 개막이였다.

이교 요리사들은 대형 요릿집은 물론이고 짜장면과 만두 같은 간이 음식을 파는 '호떡집'을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퍼뜨려갔다. 우리가 짜장면의 추억을 갖게 된 역사의 시작이였다. 짜장면은 한국 사

람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외식 시장의 최강자가 되였다. 이후 배달업의 주력이 되었고, 우여곡절 많았던 한국의 현대사에 중요한 상징으로 편입되였다.

짜장면은 아직 건재하다. 그러나 빛나던 영화의 시대는 옛말이 되였다. 현재 한국 내 중국인은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들어온 화교가 대부분이다. 학계에서는 이들을 옛 화교와 구별하기 위해 '신 화교'라 칭한다. 신화교는 짜장면을 모 르거나 안다고 해도 즐겨 먹지 않는다. 물론 식당을 열어도 짜장면이 아니라 당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을 판다. 양꼬치와 마라탕, 란주면이 그것이다.

얼마 전 대전해수욕장이 있는 보령시에 갔다. 노포(老舖)들과 사라져 가는 대포집들이 나그네를 반긴다. 요즘 이런 지역의 도시 식당가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식당이 늘고 있다는 점이 다.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새댁들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쌀국수집을 내는 것이다. 한국 농축산업과 어업에는 베트남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일하고 있다. 지역에 베트남인 커뮤니티가 생기자 보니, 자연스럽게 자국의 음식점이 생기고 성업하게 마련이다.

싹싹한 베트남 새댁들이 홀에서 서빙하고 요리도 한다. 보령 한 식당의 쌀국수 수와 요리의 맛은 기막힐 정도였다. 이른바 '본토'의 맛인 셈이다. 고수와 타이바질 같은 남방의 향신채도 듬뿍 넣어준다. 구수한 '고깃국물'에 매운 고추도 들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이런 식당들이 한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 통계 2019년 기준으로 국제결혼 건수는 2만4000여 건. 그중에서 1등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새댁들이 한국의 외식시장을 흔들지도 모른다. 쌀국수는 이미 단체 급식에도 나오는 대중음식이 되였다. 무서운 성장세의 쌀국수가 과연 짜장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만 하다. <음식 칼럼니스트>

※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 셰프가 테마칼럼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ICIF에서 요리를 공부한 박 셰프는 '노포의 장사법' '추억의 짬뽕은 맛이다' '보통날의 파스타' 등의 책을 썼습니다. 박 셰프는 식문화를 사회·문화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고

해양에서 찾은 완도의 100년 대계



신우철 완도군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 갔고 경제를 뒤흔들며 전 세계를 폐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의 일상엔 7개월째 위태롭기만 하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일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은 지혜를 모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이다.

우리 완도군은 세 가지 역점 사업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어나간다.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활발한 해상 무역 활동을 펼쳐 완도가 가장 융성했던 때처럼 말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해양 치유'다. 코로나19는 우울,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상인 코로나 블루(blue)라는 신조어까지 등

장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고, 국민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해양 치유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밀폐, 밀집, 밀집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탁 트인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심신을 치유하려는 것이다. 해양 치유가 안전한 심리적 방역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완도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환경, 청정한 바다 덕분에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미세먼지가 적어 해양 치유를 할 수 있는 탁월한 환경적 여건을 갖췄다.

2017년 해양 치유 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완도군은 2018년부터 해변에서 노르딕 워킹과 요가, 명상 등을 하는 해양치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육통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등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무려 9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 치유는 우리 삶에 안정감을 안겨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군은 해양 치유 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관광업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공원, 리조트와 호텔 유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고품질 완도 쌀인 '완도 자연그대로미(米)', 전복, 광어, 해조류, 한우 등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해양 바이오산업이다. 완도는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톳 등 해조류를 특화시켜 해양 바이오산업을 육성 중이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바다의 슈퍼푸드'라 불리는 해조류는 몸속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알긴산과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딘이 함유돼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 항바이러스 대표 식품으로 꼽힌다.

해조류는 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유럽 최대 해양생물연구소인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 연구소와 해양생물 바이오기술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조성한다. 해양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전통 산업인 해조류산업이 단순 가공 식품 생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눈에 띄게 성장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회는 해조류 박람회다. 우리 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세계 최초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바이오와 의학, 뷰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시켜 해조류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완도산 해조류가 더 많은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형 박람회로 개최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산업, 해조류박람회는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앞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완도는 머지않아 대한민국 해양치유 산업·해양바이오산업·해조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해 본다.

社說

도심 흉물 전략 '장기 방치 건축물' 대책 없나

최근 광주시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광주 옛 적십자 병원을 매입하면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도시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모두 여섯 곳이다. 특히 남구 옛 서진 병원 건물은 무려 2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인 서진병원은 당시 건물주가 의대 유치를 위해 건축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1995년 공사를 중단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홍북학원이 1996년에 학교를 짓겠다며 추진했던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 5층짜리 건물 3개 동도 22년째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2002년 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2017년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달라진 건 없다. 광주 서구청 맞은편에 14년

째 짓다 만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도 있는데, 골조 형태만 갖춘 채 공정을 60% 정도로 공사가 중단된 탓에 건물 밖에서도 각 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고스란히 보일 정도다.

문제는 이들 건물들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 국토부의 정비 계획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장기 방치 건물'은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이들 건물에 벽화나 예술 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건축주를 투자자나 건설업체와 연결시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 저온으로 피해 입은 양봉농가 지원을

올해 벌꿀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지역 양봉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다. 지난 4-5월 지속된 이상 저온 탓이다.

담양군이 최근 관내 13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벌꿀 수확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양봉 한 통의 수확량은 1.9kg(1만 7810원)에 불과했다. 이는 평년 8.7kg(8만 1560원)보다 무려 78.2%나 줄어든 것이다. 농민들은 이 같은 흉작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에서는 3186 농가가 28만여 통의 벌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벌꿀 수확량이 급감한 것은 지난 4월 말 이상 저온으로 벌이 꿀을 빨아오는 아카시아나무 꽃대에 냉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채밀(採蜜) 기간인 5월에도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꿀을 제대로 따지 못했다고 한다.

최악의 수확량으로 양봉농가들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배아 사과 등 과수 피해와는 달리 아카시아나무 피해로 인한 벌꿀 수확량 감소는 간접 피해라는 이유로 농업재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농업 재해 관련 법에는 농수축산물 및 농업 시설 등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최근 이상 저온으로 인한 벌꿀 수확 감소 같은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양봉 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과 부채 상환 연기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끔 외국 여행을 할 때면 특색 있는 베틀시장을 들르곤 한다. 이튿날 곳도 좋지만, 우연히 만난 베틀시장에서 '발견의 즐거움'을 누릴 때는 특히 기분이 좋다. 베틀시장엔 진기한 물건들이 많아 구매 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짐이 될까 봐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꼭 갔고 싶었지만 계속 이동해야 하는 여행이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해막'이었다. 여러 가지 색색깔의 아름다운 그들로 만들어진 밧시를 그 해막을 수십 번

는 아는 이의 이야기도 떠올라 부러움을 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0년간 1048개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중 대출이 가장 많은 때는 여름휴가철인 7-9월이었다. 휴가 기간 중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였고, 허기시노 게이오의 '나미야잡화점의 기적', 정유정의 '7년의 밤'이 뒤를 이었다. 모두 한번 잡으면 단숨에 읽히는 책들이다. 여행 책으로는 빌러온 그 해막을 수십 번

해막과 책 읽기

만지적거리다 결국 두고 나왔다. '달아내는 그물' 현대인 해막(ham-mock)이 발명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마야 인디언들이 기원전 1000년경 발명했다는 설이 있는 모양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해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때의 해막이 떠올라 다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는 카페에 설치된 해막에 누워 잔잔한 음악을 들으니 '힐링'이 따로 없다고 했다. 집 배란다나 거실에 해막을 설치하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책을 읽는다는 사연도 있었다. 얼마 전 시집집에 해막을 설치했다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립 산책', 이병철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이 순위에 올랐다.

빅토리아 여왕은 신하들에게 3년에 한 번꼴로 한 달가량의 유급 독서 휴가를 주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다섯 편을 정독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휴가'(shakespeare vacation)다. 코로나 시대의 여름휴가는 여느 해와는 달라질 듯하다. 흔들리는 해막 위에서, 혹은 그 어디에서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을 벗 삼아 나만의 '독서 휴가'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의료칼럼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힘'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과정에서 유독 불가항력적 질환에 민감하다. 이유는 평소 건강하게 보였던 임신부와 태아가 분만 중 사망하거나 아기가 잘못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탓이다. 이 같은 질환에는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태반 흡입증후군, 뇌성 마비 등이 있다.

양수색전증은 진통 중 혹은 분만 직후 갑자기 호흡 곤란과 저혈압이 오는 질환이다. 양수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손 한번 써볼 겨를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 폐색전

증은 임신이 되면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임신 자체가 위험 인자가 된다. 비단인 경우와 제왕절개를 할 때 위험도가 더 높으며 분만 후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흉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도 있다. 뇌성 마비는 대부분 산전 원인에 의하고 분만 과정과의 연관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생아에 뇌성 마비가 발생하면 산부인과 의사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질환이다.

이상의 질환들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임신부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 사고로 오인해 법정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늘 긴장하며 진료에 임한다. 이런 분쟁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분만 수가, 출산을 감소 등은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해 분만 기관 감소,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감소 등 분만 인프라 붕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의료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 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 신생아가 뇌성 마비로 진단되면 3억 3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과 분만 병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 약 6000만 원을 100%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담배 등에 부과하는 건강 복지세, 기부금 수입 등을 통해 마련한다. 덕분에 대만도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상 의료 사고 보상 사업의 대상 및 요건을 살펴 보면 1)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3)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4)분만에 따른 의료 사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의료 사고 보상 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 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사업을 위한 재원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료중재위원장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상법은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비용의 부담 주체와 보상금의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배상 또는 보상 기구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 제도 운영의 경제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성해야 한다. 또한 최고 보상금 30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증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직면한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타당한 국가 배상 해법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 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